

큰스님 수행한담

끝없이 자신을 경책하세요”



◇94년 4월 김림성 도문시에 도문불교포교당을 개설하며 스님의 상좌 성룡스님(조선족 사진 오른쪽), 정암스님(현 북경대 졸업반)과 함께한 백운스님(가운데 앉아 있는 스님).

“서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탓이다’ 생각하고 잘못 되풀이 안하는 노력을”

주인공이 되라는 말입니다. (보살계경)에 보면 보살계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의 왕이 되고 아귀계에 떨어지면 아귀의 왕이 되고 인간계에 떨어지면 인간의 왕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살계를 받으면 지옥에 떨어져서도 그곳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곳의 주인이 되는 마음 얼마나 멋진 경지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오로지 남과 경쟁해 이기려고만 하고 뛰든지 많이 갖고자 아귀다툼을 벌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현재의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고 참사람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사람이 되어 모든 곳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힘과 지혜가 생겨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지고 어려워진다 해도 사람답게 살겠다는 정신을 버리면 안됩니다. 그렇게 될려면 굳은 신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심을 바탕으로 참수행을 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말은 하면서도 실지 왜 못

는 겁니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불법입니다.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살도의 정신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부단히 정진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오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는 없고 모두들 책임을 남에게 돌려 버립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도 누구 한사람 책임감을 느끼고 내 잘못이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큰 사건 날때마다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로가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반성을 해야 향상이 될텐데 전혀 책임감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종단의 분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서로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입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의 책이요, 어려서 나도 《명심보감》을 배웠지만 그때는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그 책 내용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얘가지 불교란 불(佛)자 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바닷물이 마르면 마침내 바다 밑 바닥을 보지만 사람은 죽어도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죽어도 마음을 모르느냐 말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소리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말과 같아요. 이 세상사람 전부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전부 남의 탓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은 자기가 했다고 하고 나쁜 일은 다 남이 했다고 해요. 옛 조사들은 법을 위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았습다. 요새는 법을 위해 신명을 바치는 이들보다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는 이제 깨달음을 위해 신명을 바치는 참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제자 모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경책해 나갑시다.

정리=천미회 기자 (mhcheon@buddhopia.com)



방민준

(한국일보 광고국 부국장)

나와 불교와의 인연은 여러 종교를 찾아다니시다가 최후로 불교를 선택해 그 선택을 일생의 행운으로 여긴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오랜동안 그저 어렵듯하게 불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불교란 보통의 종교가 아니라 철학에 보다 더 가깝다는 것. 어떤 절대자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깨달은 인간인 석가모니를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 거지나 살인범이나 창녀는 물론 미물에 이르기까지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였다. 그리고 아나베들의 기복적인 신앙이나 일부 정삼계를 벗어난 스님들의 일탈행위들과는 무관하다는 것 정도였다. 웅대하고 심오한 우주철학과 자체인 불교를 종교라 하는 틀 속에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

계사 부근의 서점을 전전하며 선에 관한 서적과 불교경전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며 수많은 무릎을 쳤다. 거대한 광맥을 발견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머리맡에는 항상 십여권의 선 관련서적과 불경, 중국의 고전들이 놓여 있었는데 지난 3년간 수많은 정신세계의 책들이 내 머리맡을 거쳐갔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선과 경전에서 얻은 주옥같은 가르침들이 피부에 와 닿기 시작했고, 골프라는 운동을 대하는 자세도 확연히 달라졌다. 골프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더니 서서히 세상을 대하고 보는 눈과 마음도 열리고 있었다. 새로운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듯 했다.

골프라는 치기 어린 듯한 운동을 하다가 뜻밖의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광

골프치다 禪수련 연상 불교에 심취 ‘취캐다 산삼발견한 기분’ 책에 담다

었다. 이런 나에게 어느날 갑자기 불교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것도 골프라는 극히 세속적인 운동을 매개체로 해서. 흔히들 골프를 20%의 기계적인 기술과 80%의 마음의 기술로 이뤄진 운동으로 정의할



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힘부리를 캐러다가 산삼발을 발견한 기분 이랄까. <달마가 골프채를 잡은 까닭은?>이란 책을 쓴 이유는 일차적으로 수많은 골퍼들에게 골프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골퍼를 단지

만골프는 유난히 정신적인 면이 강조되는 운동이다. 보다 나은 플레이,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연습외에 부단한 정신수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느순간 골프를 수련하는 것은 바로 고승들이 선(禪)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며 제대로 골프의 진수를 맛보려면 마음의 평정, 즉 평상심(平常心)이 필수적이다. 회노악의 극단적인 감정과 갈등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그 마음으로부터도 초연해야 한다. 자아와 모든 대상이 일체가 되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최고 경지의 골퍼임을 틀림없을 것이다. 이때부터 시내서점의 불교코너와 조

보통 운동으로 여기고 육체적인 연습에만 열중하며 골프의 진면목을 모른 대부분의 골퍼들에게 골프가 안고 있는 깊디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라는 다이아몬드광을 찾아내고는 이 머리가 깨지는 듯한 큰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욕심이 더 절실했다. 불교에 문외한인 많은 사람들에게 골프라는 운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불교라는 종교를 이해시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정신수양도 하고, 진리를 찾는 해인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아직은 부처님을 향한 뿌리가 어리고 짧지만 불교와 골프를 접목시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향한 그리움의 불씨를 지퍼주고 싶다.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것이 불법실천” “어떤 환경에서든 그곳의 주인 되세요”

군요. 그만큼 공부에는 눈높은 선지식의 가르침이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통산 스님은 대중생활을 할때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입니다. 아침 공양이 끝나면 제일 먼저 빗자루 들고 마당에 나가시니 다른 대중스님들이 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른이 앞장서니 질서가 잡히고 다 잘되기 마련이지요.

지리산 천은사위로 올라가면 상선암이라고 나옹스님이 계셨던 곳이 있는데 불교전화 이후 그곳에서 3년간 혼자 탁발해서 먹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주 어려운 갈림길에 섰던 적도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 동국대학교나 불교대학을 다녀서 공부를 하면 포교도 하고 좋겠다 싶어 스님들이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해인사에서 세웠던 해인대학의

를 갔다가 만약에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6·25때 관음보살님과 ‘다시는 세속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님된 것을 후회해 본적 없어요. 내생에 다시 태어나도 스님노릇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중노릇처럼 좋은 게 없어요. 무소유의 삶이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욕심은 환경 없는 것이니 그 욕심자체를 비우고 물욕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수처작주(隨處作主)’라는 말을 새겨볼만 합니다. 수처작주는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에서 주인이 되라. 즉

비유나 하면 참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선을 한다는 말은 자기를 돌이켜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에서 자기의 허물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짓는 잘못을 참선을 통해 깊이 성찰하면 그 잘못들은 저절로 없어지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야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로 벗어날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보살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보살행은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타자리, 즉 다른 이를 이롭게 하고 다른 이를 다 불도(佛道)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원력이 중요하합니다. 그런 보살도를 행하려면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자연히 보살도 정신은 실현되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2 - 교리·입문편. “팔만사천 법수에 담긴 깨침의 묘리”. 경전에는 숫자가 붙은 불교 용어가 무수히 많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숫자들을 가리켜 법수(法數)라 한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숫자,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달리 불교의 법수는 대략 두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는데,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에서 중생과 세계의 모습에 대해 내린 분석과 판별의 결과를 중생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 중생들을 해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생들에게 일러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머리말에서- ●이제껏 지음● 66 변형 196쪽/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수록된 법수 목록: 일념(一念), 일단일제단(一斷一切斷), 일불승(一佛乘), 일심(一心), 이공(二空), 이변(二邊)과 중도(中道), 이강(二障), 삼계(三界), 삼법인(三法印), 삼보(三寶), 삼성(三性), 삼업(三業), 삼처전심(三處傳心), 삼학(三學), 사덕(四德), 사상제(四聖諦), 오개(五蓋), 오온(五蘊), 오망상(五妄想), 오안(五眼), 육도윤회(六道輪廻), 육바라밀(六波羅蜜), 육신통(六神通), 칠각지(七覺支), 칠번(七辯), 칠불통계(七佛通戒), 팔난(八難), 광부중도(八不中道), 팔식(八識), 구상관(九想觀), 구품(九品), 구종식(九種食), 구형사(九橫死), 십금강신(十金剛身), 십력(十力), 십인(十忍), 십이연기(十二緣起), 49제(四十九), 53선지식(善知識), 32길상(吉祥), 80종호(種好), 108번뇌(煩惱), 천수천안(千手千眼), 팔만 사천 법수(法數).